



해외양돈뉴스



※미 국

내년 돈육 생산량 2% 증가할 듯 농무부 1천만톤... 캐나다산 생돈 수입 늘어서

내년에도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농무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캐나다로부터 비육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올해보다 2%가량 많은 221억파운드(약 1천만톤)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금년 하반기 캐나다로부터 수입될 비육돈이 492만5천마리로 지난해 동기간 454만3천마리보다 8% 가량 늘어 내년 상반기 도축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비육돈을 포함한 생돈 수입량은 올해 960만마리, '08년 970만마리로 전년 대비 각각 10%, 1% 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돼지고기 수출은 지난해보다 0.8% 가량 적은 29억7천만파운드로 예측됐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수출이 계속 늘고 있어 '08년에는 금년보다 3.8% 증가한 31억파운드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돈업 연 손실액 15억달러 폐사 등 생산성 감소 비용

미국의 양돈업이 질병으로 연간 15억달러(원화 1조3천500억원)가량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아이오와 주립대 '켄 스톨더 교수'는 지난 24일 종돈세미나에서 '농장의 질병 유입 요인 줄이기'란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 양돈업의 경우 질병의 비용이 ▲폐사 10억 달러 ▲수의사 비용 2억5천만 달러 ▲생산성 감소 2억5천만 달러 등 총 15억 달러(1조3천5백억, 연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켄 교수는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화하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 시 돼지 이동 통제, 돈군 폐쇄, 철저한 소독, 백신 접종 등 철저한 방역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돼지고기 수출 감소 8월말 80만톤 전년비 3% 줄어

미국의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인 멕시코로의 수출이 크게 줄면서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최근 미국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8월 돼지고기 수출은 10만여톤으로 전월 9만톤에 비해 12%, 지난해 동월 9만3천톤 대비 8.6%가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2~7월까지 전년비 감소세를 기록한 영향으로 8월말 기준 수출량은 일년전 83만톤보다 3% 가량 적은 80만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 수출국인 멕시코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8월말 멕시코로 수출한 돼지고기는 17만5천톤으로 06년 같은 기간에 견줘 2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대 수출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22만9천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8%가 늘었다.

또한 홍콩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어 각각 8만8천톤, 1만2천톤으로 작년 대비 61%, 70%가 증가했다.

※일 본

생산이력 돈육 첫 출시 브랜드 'TOKYO X'

일본이 돼지고기 생산 이력제를 도입했다.

최근 도쿄 aT센터에 따르면 일본의 돼지고기 브랜드 'TOKYO X' 유통조합은 지난달 도쿄의 한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돼지고기 생산 이력제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제품에 부착된 2차원코드(QR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생산자, 출생일, 도축일 등 생산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이 시스템을 12월부터 모든 판매점에 도입할 예정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가능성을 없애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돈육 이력시스템은 돼지 1두 중량이 적고 다두 사육되고 있어 실시 되지 않았다.

※중 국

구제역 재발

중국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다. 최근 중국 농업부는 칭하이주 유슈지역 농가의 야크에서 구제역이 발병, 58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국가구제역참고실험실 검사 결과 아시아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중국은 지난해 구제역으로 1천두 이상을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PRRS 中·러시아도 강타

중국과 러시아에서 PRRS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29일 26개 주 304개 지역에 PRRS가 번져 방역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31만마리가 감염됐으며 8만여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도 PRRS가 발생했다.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이르쿠츠키야 등 2개 지역에서 PRRS가 발병했다. 이에 따라 106마리가 PRRS에 감염돼 66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올림픽 대비 비밀 양돈장 운영

'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둔 중국이 선수단에 제공할 돼지고기를 위한 비밀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올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돼지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10군데에 비밀 양돈장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이 양돈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북경올림픽에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독점 제공키로 한 북경천희학 그룹으로 양돈장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농장은 유럽연합인증 유기농산물로 만든 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 만

돈육 1인당 40kg 소비

대만의 총 육류섭취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타이베이 aT센터에 따르면 대만의 연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1인당 40kg으로 전체 육류 섭취량 77kg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육류는 닭고기 등 조류 32.3kg, 쇠고기 3.6kg, 양고기 1.6kg 순을 기록했다. 대만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많은 것은 돼지고기를 재료로 하는 요리가 많은 데다 최근 일본식 돈까스가 인기를 끌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

돼지열병 발생

러시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러시아 프리모스키 크라이 등 2개 지역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0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러시아는 127두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및 감염지역 내 소독 등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돈**

